

# “5천여시간 봉사, 그 자체가 제 삶의 행복”

## 백등기광주동구계림1동새마을협의회장

“5천시간 넘도록 봉사했지만, 저는 오히려 더 행복했습니다. 제가 한 일보다 그 시간들이 제게 준 기쁨이 훨씬 컸으니까요.”

백등기(71·사진) 광주 동구 계림1동 새마을협의회 회장은 22일 지난 30년간의 봉사 활동에 대한 소회를 이같이 밝혔다.

자연보호 활동으로 첫 봉사를 시작한 그는 주민 화해 지원, 재난 대응, 복지 사각지대 지원 등 다양한 곳에 손을 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그는 2023년 5천여시간의 누적 봉사 기록을 달성,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했고 지난해엔 광주동구자원봉사센터를 통해 ‘봉사명장’ 칭호도 받았다.

백 회장은 1988년 계림1동 통장을 하면서 처음으로 봉사를 접했다.

행정과 지역 주민 사이를 잇던 그는 ‘조금 더해보자’는 마음으로 자연보호중앙연맹 동구협의회에 들어갔고 이후 새마을회, 자원봉사 캠프,

1996년 계림1동 통장 당시 봉사 접해

이후 30년간 환경 개선·이웃 돕기 등

주민 갈등 중재·충장축제에도 손 보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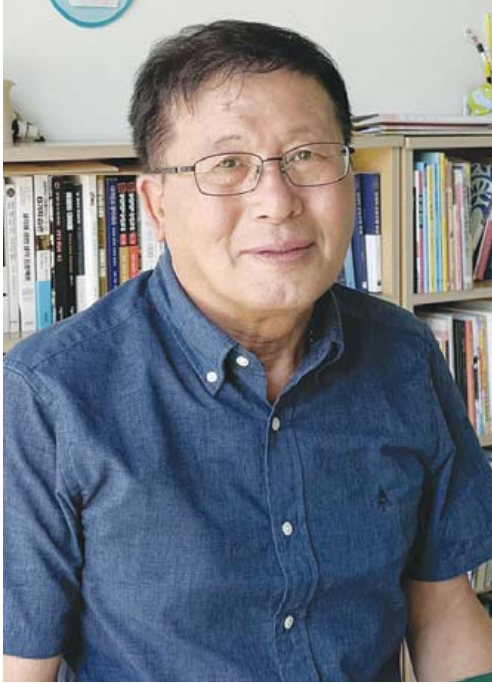
프, 주민자치회 등으로 활동 반경을 넓혔다.

“길가에 버려진 쓰레기를 볼 때마다 속이 상해서 직접 나섰다”는 그의 말처럼 푸른길 공원 정화, 광주천 쓰레기 수거, 외래식물 제거 등 지역 환경 개선에 힘을 쏟았다.

백 회장은 계림1동 주민 간 갈등 중재자로도 활약하고 있다.

2017년부터 계림1동 ‘소통방장’으로 활동한 그는 마을 내 사소한 다툼이나 불만이 번지기 전에 예방하는 데 주력했다.

백 회장은 “서로 얼굴을 아는 사이가 되면 주민들 간 자연스레 다툼도 줄어들고 소통도 늘어날 것이라 생각했다”며 “그래서 환경 관련 사업이나 교육 등에 마을 주민들을 참여하게 해서 서로 얼굴을 익히고 좋은 일에도 동참할 수 있도



록도 왔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관내 저장강박증이 있는 어르신들의 집을 청소하고 폐기물이 쌓인 주택을 정리하며

이불과 생필품을 전달하는 등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에도 적극 나섰다.

백 회장은 “주위에 어렵게 사는 분들이 많아 어떻게든 도움이 되고 싶어 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해 관련 활동들에 참여하게 됐다”며 “깨끗해진 집을 보고 좋아하시던 모습들이 잊혀지지 않는다”고 미소 지었다.

지역 축제와 재난 현장에서도 그는 늘 ‘보이지 않는 손’으로 통했다.

충장축제 1회부터 20회까지 주차 안내와 행사 보조를 도맡아온 그는 전주 홍수 피해 복구 등 타 지역 재난 현장에도 자원봉사자로 참여했다.

올해 열릴 제22회 충장축제에서도 백 회장은 주민들과 함께 봉사 활동을 펼칠 생각이다.

백 회장은 “봉사는 자기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태도와도 연결된다고 생각한다”며 “그동안 해온 봉사활동을 통해 오히려 제 자신이 더 성장한 기분이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건강이 허락하는 한 마을을 위한 소통과 봉사를 계속 실천하고 싶다”고 밝혔다. /장은정기자



## 배상진 장성경찰서장, 노인대학 특강

장성경찰서는 22일 “대한노인회 장성군지회 부설 노인대학에서 지난 19일 범죄 예방과 어르신 안전을 위한 특강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강은 노인대학 수강생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배상진 장성경찰서장이 강사로 나서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장소 만들기’를 주제로 강의했다.

배 서장은 교통사고와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실제 사례와 대처 방법을 알기 쉽게 설명해 큰 호응을 얻었다.

배상진 장성경찰서장은 “이번 특강을 통해 어르신들이 범죄와 교통사고로부터 더 안전하게 지킬 바란다”고 말했다. /장성=김문태기자



## GS칼텍스 ‘소액기부’ 3년 만에 1억 달성

GS칼텍스는 22일 “임직원 참여형 기부 캠페인 ‘소액 기부 WEEK, 천원의 행복’이 시행 3주년을 맞아 1억여원을 달성, 기부금을 지역사회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캠페인은 임직원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1천원을 기부하면 회사가 동일 금액을 추가로 기부하는 매칭그랜트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2022년 5월 시작 이후 현재까지 누적 참여 인원은 1만1천147명, 회사 매칭그랜트를 포함한 누적 기부금은 1억2천31만원에 달한다. /여수=김진선기자

## 인사

광주시교육청 ◇4급 승진 ▲전남대학교 교육협력관 정광희 ▲광주

중앙도서관장 김정희 ◇4급 전보 ▲교육연수원 총무부장 정영미

◇6급 승진 ▲행정국 시설과 미래학교복합시설담당 박재형

◇6급 전보 ▲공보담당관 공보담당 최기영 ▲감사관 공익감사담당 유영현 ▲정책국 안전

총괄과 산업재해예방담당 박옥희 ▲교육국 인성생활교육과 대안교육담당 유경아 ▲행정국

총무과 총무담당 노진희 ▲행정국 총무과 비서실장 장상석 ▲행정국 조직복지과 자치협력담당 유선주 ▲행정국 행정예산과 학교회계담당 박영태 ▲행정국 시설과 학교시설1담당 최인주

▲행정국 시설과 학교시설2담당 김근열 ▲행정국 시설과 학교설비담당 박광석 ▲동부교육지원청 평생교육복지과장 변수진 ▲동부교육지원청 학교시설지원과장 신우진 ▲금호평생교육관 문헌정보과장 서효정 ▲중앙도서관 문헌정보과장 안현아 ▲유아교육진흥원 관리과장 최근영 ▲광주소프트웨어마이스터고등학교 행정실장 임호숙 ▲전남공업고등학교 행정실장 윤상선 ▲상무고등학교 행정실장 조영희

광주 동구 ◇4급 승진 ▲기획예산실 기

김호 ▲복지정책과 김성애

◇6급 승진 의결 ▲청렴감사관 이상철 ▲노인장애인복지과 허장 ▲도시공간계획과 이수일 ▲마을자치과 박승배 ▲회계과 신승부 ▲산수2동 방소형 ▲주거정책과 최배성

## 결혼

▲박종덕·백미정씨 아들 준용군, 박준수(전 광주 매일신문 대표이사)·임혜순씨 장녀 지용양=7월 6일(일) 오전 11시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 155 더컨벤션 송파문정점 13층 아모르홀.010-6232-3078.

## 부음

▲정철씨씨 별세, 정영록(광주매일신문 부국장)씨 부친상=발인 24일(화) 오전 8시 강진장례식장 1분향소(061-432-4004).



## 광주매일신문, 맑은누리지역아동센터 NIE 순회교육

지역신문발전기금 미디어 교육 사업에 선정돼 지역아동센터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광주매일신문이 지난 20일 광주 북구 맑은누리지역아동센터를 찾아 NIE(신문활용교육) 교육을 진행했다.

이 시간에는 ‘신나게~ 재밌게~ 함께 만드는 학교신문·가족신문’ 교재를 활용해 뉴스가 되는 사안과 뉴스 선택 기준, 글쓰기 방법, 기사의

특성 등 신문 제작에 필요한 이론 교육이 이뤄졌다.

교육에 참여한 최주안(용두중 2)·김시연(양산초 6)·김은영(양산초 6) 학생은 신문 만들기에 대한 다양한 질문을 쏟아내며 큰 관심을 보였다.

광주매일신문은 각 지역아동센터 순회교육이 마무리되면 학생들이 직접 만든 신문을 공모해 시상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박희중기자



## 호남직업전문학교 고3 학생들 ‘꽃메요양원 봉사’

호남직업전문학교는 “최근 한식조리과정 등 일반고 3학년 학생들이 광주 꽃메요양원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자연 체험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22일 밝혔다.

동구 용연마을 제2수원지 일대에서 진행된 봉사활동에 참여한 학생들은 사전 조사로 어르신들의 건강 상태와 관심사를 파악하고, 직접 구운 빵과 꽃다발을 준비했다.

또한 현장에서 즉석 노래자랑을 선보여 어르신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기도 했다.

한 어르신은 “손주 같은 학생들이 찾아와줘서 큰 힘이 됐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고, 한 학생은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어르신들과 얘기를 나누며 오히려 제가 위로를 받았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윤세 호남직업전문학교 이사장은 “학생들이 봉사를 통해 인성을 기르고 세대 간 소통의 가치를 배우는 소중한 기회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주성학기자

## 영광청소년상담센터 청소년들, 양로원 간식 전달

영광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최근 센터 소속 영광군노래상담자연합회와 청소년 봉사단이 ‘늘해랑’과 함께 샌드위치 등을 만들어 비룡양로원에 전달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간식 전달은 청소년들이 지역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기 위해 마련했다.

활동에 참여한 한 학생은 “동아리 회원들과 함께 샌드위치를 직접 만들어 어르신들께 전달할 수 있어 뿌듯하다”며 “친구들과 함께해 더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영광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관계자는 “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나눔을 실천하며 공동체 의



식을 기우는 값진 시간이 됐다”며 “앞으로도 나눔 실천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영광=김동규기자



## 무안읍주민자치회-공주시 금학동주민자치회 교류

무안읍주민자치위원회는 “최근 충남 공주시 금학동주민자치회가 무안읍을 찾아 선진지 견학 및 교류 등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고 22일 밝혔다.

최근국 공주시 금학동주민자치회장은 “무안읍주민자치위원회가 활동을 잘하고 있다는 추천을 받아 무안군을 방문하게 됐다”며 “금학동주민자치회의 연혁과 활동을 소개하고 좋은 경험을 나누고 싶다”고 말했다.

이성준 무안읍주민자치위원장은 “역사와 전

통이 깊은 공주시 금학동주민자치회 위원들의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교류를 통해 서로의 노하우를 나누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력 관계가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김도안 무안읍장은 환영사에서 “1894년 동학혁명 최후 격전지 우금치를 품고 있는 금학동과 동학과 인연이 깊은 우리 무안군이 인연을 맺게 돼 뜻깊다”며 “양 기관의 우호 협력이 더욱 발전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무안=김상호기자

## 광주시, 치매어르신 실종 예방 합동 캠페인

광주시는 지난 20일 광역치매센터 및 5개 자치구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와 함께 조산대 입구 등 6곳에서 ‘치매 어르신 실종 예방 서비스’ 합동 홍보 캠페인을 벌였다.

이번 캠페인은 야외 활동이 많아지는 여름철을 맞아 치매 어르신의 실종 위험이 높아지는데 대비해 시민들의 인식을 높이고 실종성 있는 예방 서비스를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캠페인은 ▲동구 조산대학교 입구 ▲서구 5·1 87기념공원 앞 사거리 및 운전저수지 앞 사거리 ▲남구 백운광장 ▲북구 운암사거리 ▲광산구 흑석사거리 부근 홈플러스 하남점 앞 등 총 6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다.

현장에서는 배회감지기, 부착식 인식표, 지문·사진 사전등록 등 다양한 서비스가 집중 홍보됐다.



실종 예방 서비스는 각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 환자라면 무료로 신청할 수 있다.

배강숙 건강위생과장은 “많은 시민들이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활용하길 바란다”며 “지역 중심의 촘촘한 치매 관리체계를 통해 치매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변은진기자

## 전남도 ‘영·호남 사회복지관 임직원 워크숍’ 성료

전남도는 지난 20일까지 이틀간 보성다비치콘도에서 ‘제30회 영·호남 사회복지관 임직원 워크숍’을 열어 상호 복지 비전과 경험을 공유하고 교류와 협력 의지를 다졌다.

워크숍에는 김철우 보성군수, 이상심 전남도 보건복지국장, 김진문 전남사회복지관협회장, 정민화 경남사회복지관협회장 등 영호남 사회복지관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했다.

지역 복지 현장에서 헌신한 유공자 27명에게 도지사 표창이 수여됐으며, 모범사례 발표와 특강, 현장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이상심 보건복지국장은 “사회복지기관은 지역



사회 복지서비스의 핵심 거점”이라며 “현장에서 묵묵히 헌신하는 종사자가 보람과 자긍심을 갖고 일하도록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영·호남 사회복지관 워크숍은 1994년 시작된 이후 전남·경남 사회복지관협회가 매년 번갈아 개최하는 대표적 지역 협력사업이다. /양시원기자